

보도일시 | 2024년 6월 14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명 | 경영지원팀

담당자 | 김도훈

연락처 | ☎052-226-0019

## 장생포 아트스테이 문화강연 ‘각자의 속도’ 개최

- 6월 15일 임택수 소설가의 ‘오늘의 나무는 어제의 그 나무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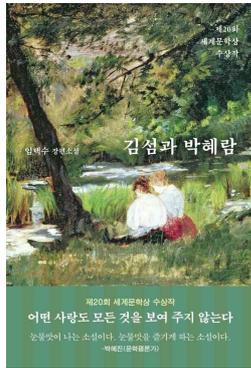
- 6월 28일 민바람 작가의 ‘순우리말에서 찾은 위로와 용기’



<강연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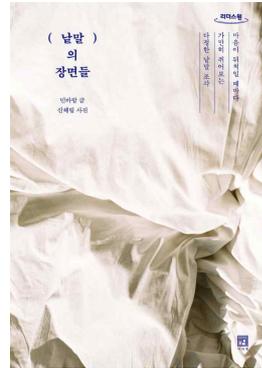
<임택수 소설가>



<김섬과 박혜람>



<민바람작가>



<날말의 장면들>

장생포 아트스테이(고래문화재단 운영)는 6월 15일을 기점으로 문화강연 ‘각자의 속도’를 개최한다.

‘각자의 속도’는 도전에 주춤하거나 제자리에 멈춰있는 것 같아 두렵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현재의 도전이 늦은 것이 아님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의 때가 다가올 수 있음을 전달하여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기획된 강연이다.

강연은 두 차례 진행되며, 6월 15일(토) 임택수 소설가의 <오늘의 나무는 어제의 그 나무가 아니다>를 시작으로 6월 28일(금) 민바람 작가의 <순우리말에서 찾은 위로와 용기> 강연으로 매듭을 짓는다.

첫 번째 강연자 임택수 소설가는 울산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장생포 아트스테이 4기 입주작가 출신으로 올해 동아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에 당선되어 작가로 데뷔한 뒤 연달아 세계문학상을 수상했다. 2024년 5월에는 세계문학상 당선작이며 장생포의 경험이 일부 실린 「김섬과 박혜람」을 출간하였다.

임택수 소설가의 강연에서는 무수한 실패와 낙담, 다시 도전하던 과정과 그 노력의 결실물인 ‘김섬과 박혜람’에 대해 다룬다. 등단을 향한 임택수 소설가의 꺾이지 않았던 도전정신과 마침내 이뤄낸 문학적 성과와 저서 「김섬과 박혜람」을 바탕으로 꿈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에게 격려와 용기, 희망을 주고자 한다.

두 번째 강연자인 민바람 작가는 2020년 EBS라디오×카카오브런치 <나도작가다> 3차 공모에 당선하였다. 저서로는 2023년 에세이 「날말의 장면들」, 2022년 에세이 「우아한 또라이로 살겠습니다」가 있으며, 2020년 EBS라디오×카카오브런치 당선 작품집 「너의 목소리를 그릴 수 있다면」 출간에 참여하였다.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대학원에서는 국어학과 한국어교육학·한국학을 전공하고 10여 년간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민바람 작가는 힘든 순간마다 날말을 외우고 이로부터 위안을 받고 삶의 방향성을 발견했다. 민바람 작가의 강연은 날말이 주는 말뜻과 말맛에서 나아갈 길을 찾은 작가의 경험을 나누며 저서 「날말의 장면들」을 토대로 삶을 위한 방식을 찾아본다.

강연은 30명 이내의 인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장생포 아트스튜디오 야외 마당에서 진행된다. 접수는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홈페이지 또는 전화(052-276-9675)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장생포 아트스튜디오 사무실로 문의(052-276-9675) 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래문화재단 전시기획팀 조다솔(☎ 052-276-967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12.

등록번호 : 고래문화재단-5327

결재	★대리	총괄주무관	상임이사
	김도훈	대결 06/12 전순배	전결